거룩을 향한 중단 없는 추진력의 근원

(레13:1~59)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3.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5.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룩을 향한 중단 없는 추진력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거룩을 향한 중단 없는 추진력의 근원'
레위기 11장 44-4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민을 향하신 가장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요구가 거룩함입니다. 앞서서 계명들을 지킬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였고, 각종 다양한 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성막을 건립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시행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선민들에게 거룩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선민을 거룩하도록 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집행합니다. 이렇게 근원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선민이 거룩한 자들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거룩함의 삶입니

다. 그런데 11:44절의 말씀대로 거룩함의 반대는 더러움입니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라고 하시는데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몸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신약성경에서 거룩함을 반복해서 해석하십니다. 이 마음의 거룩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자니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룩함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몸의 깨끗함과 더러움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거룩에 대한 가르침들이 보이는 몸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통해서 마음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가리키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이런 비유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정결에 관한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에만 갇혀서 몸의 깨끗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부지런히 신체상의 정결예식을 준수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나무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11장에서 먹거리와 거룩함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 더럽게 하므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다. 또 마23:25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하십니다.
부지런히 신체상의 깨끗함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면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궁극적 지향점은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마5: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닙니까? 볼 수 없는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거룩함은 더러움과 반대 입장에 서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선 기억을 되살리면 하나님께서 먹거리와 거룩함의 문제를 연결시키시고, 그 다음에 출산한 여인의 상태를 거룩함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나병의 상태를 거룩함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비유적 요소를 통해서 마음의 깨끗함인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먹거리와 거룩함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가장 우선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이런 필요불가결한 일상적 요건과 연결을 시키는 것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선민이라면 거룩함을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일상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

거리와 연결시킴으로서 먹거리 이전에 벌써 거룩을 먼저 기억하고 먹어야 하고, 거룩함의 의미 속에는 또 편안해야 하는데 편안한 상태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밥을 먹는 행동이 항상 거북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밥을 먹고 위장병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면 체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 밥인 것처럼 거룩은 가장 원초적으로 요청되는 필수적 요건임과 동시에 가장 편안한 상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확정하시면서 거룩의 의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산한 여인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동원하십니다.
자궁과 거룩, 태아에게 가장 편안한 꿈의 궁전은 어머니의 자궁인데 그것을 벗어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는 것입니다. 가장 평안한 처소를 상실한 울음으로 사랑수 분만법이 동원되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을 어머니의 자궁과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아이로 하여금 울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 사랑수 분만법입니다. 이것이 동원되는 것은 사람은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으로 내보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획하실 때 이미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 때까지의 삶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계획의 자궁이 있다는 것이고, 인간의 몸이 태어나서 일생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시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계획의 자궁 안으로 그 삶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이후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선악판단의 주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으로 버려지게 되는 상태로 여인의 출산을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지로 여인이 출산하는 것이 그게 왜 더러움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의 더러움을 겨냥하고 거룩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다고 하면 출산하는 자체가 여인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닌데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으로 던져진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자궁이 답답해 보입니다.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하고 판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한다는 게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조그만 자궁 안에 태아가 들어있는 것이 가장 편안한 꿈의 궁전의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서 나의 삶이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가장 평안한 상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궁 바깥으로 던져졌는데 문제가 무엇이고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나병이 동원되는데 거룩함을 가리키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병이 동원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의 자궁이 가장 원초적으로 나를 위해 마련된 평강의 상태, 만족과 기쁨의 상태, 더 이상은 좋음이 없는 그런 좋음의 상태인데 그것이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누리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서 저주 속에 머물고

더러움 속에 머물게 되어서 내 삶이 이렇게 거북하고 불평과 불만과 걱정거리가 태산 같이 쌓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데 오늘 나병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상태인지를 몰라요. 더러움, 불결함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격, 내 마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내 몸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있게 하신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청결한 것입니까? 있게 하신 내 몸은 어디에 있어야 청결한 것입니까? 타락이후에 내 마음도 있어야 될 것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몸도 있어야 될 것이니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있게 하신 것이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마치 김치가 김치 그릇이나 김칫독에 있지 않고 책 위에 얹혀있거나 옷장 서랍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도 깨끗하고 김치도 깨끗하지요. 지금 우리의 삶이 옷장 서랍 안에 김치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 지금 그게 옷장 서랍 안에 김치를 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사업 때문에 걱정이 많고 불행하고 짜증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삶의 문제가 청결하지 않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있어야 될 곳을 모르고 헤매고 다닙니다. 내 몸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있어야 될 곳을 모르고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옷장에 김치가 담겨있는 것 같은 현실이 벌어짐으로써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도 있어야 될 것이므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서 있어야 될 정해진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문제가 아닐까요? 이 세상에 자식을 통해서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라고만 보지 말고 이상하다고 한번 보세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나병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나병은 요즘은 피부병의 하나로 봅니다만 옛날에는 하늘이 내린 천형(天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것이 확실시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라고 하시는데 이 45-46절의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각, 이 깨달음을 늘 마음속에 갖고 생활화할 때 거룩을 향해 추진되어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의 자궁 바깥으로 던져진 상태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지금 상태의 더러움을 모르는 것이고, 더러움을 알아야 깨끗함에 대한 마음의 방향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모르고 있으니 깨끗함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병환자가 선민의 그룹 안에서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것처럼 자아의식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진짜 나병환자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나병을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적으로 거룩함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있지 않고 내 뜻으로 살아가는 저주의 상태에 있으면서 온갖 더러움으로 인해 삶이 거북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병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근동지역의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극도의 슬픔과 애통의 표현으로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애통함으로 죽은 자를 애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슬픔과 애통을 말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슬프고 뭐가 그렇게 극도의 애통이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극도로 슬퍼하고 극도로 애통해야 하는 상태로 자연스러운 자연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이 주님의 마음을 지배했으면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흐르는 땀에서 피가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주여 삼창을 소리 소리를 지르면서 목에서 피가 나올 수 있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하다가 목에서 피가 나올 수는 있지만, 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토록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 저주의 세계로 던져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인데 우리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으니 나병을 통해서 가르쳐주십니다.

나병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요. '머리를 푼다.'는 것은 삶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삶을 또렷한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극도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면 밥은 무슨 밥이냐고 내가 지금 밥 먹게 생겼냐고 하면서 밥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 못 사는 것인데 이 상태를 말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뜻은 나는 당신이 상종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오물이 묻은 게 아니라 오물이 솟아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내 마음속의 생각부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23: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에 있으므로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입

에서 나오는 말마다 발로 가는 곳마다 더러움이 발생하므로 나를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앞에 놓고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상종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상종할 수 있는 엄마가 아니다. 나를 상종하면 네가 곱빼기로 더러워진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할수록 생각할수록 너의 인생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너는 더러워진다.'라는 것이 바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도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향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너를 만지면 만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는 망가진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진영 바깥에서 산다.'라는 것은 혼자 살되 진영 바깥에서 삽니다. 혼자 인간세상에서 사는 것이 고독을 즐기며 사는 것일 수 있는데 결국 사회적 관계가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진영 바깥에서 사는 것은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없으면 거룩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근본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하고 내가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병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병환자의 의식이 있어야 거룩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유일한 길인 십자가 생활화로 내가 나를 몰아갈 수가 있는데 나병환자의 의식이 없어요. 지금 자식이 앞에 있으면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해서 자식에게 말 한마디 하면 자식을 망가뜨리고 자식이 더럽혀지고 내가 손대는 만큼 자식이 더러워진다는 생각이 있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자식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만 만나고 내 몸은 자식 관계에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들어감으로 평안함이 만들어지고 좋음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만지는 대로 부정해지는 것인데 이 부정하다는 자각이 없고 그 상태를 슬퍼할 줄도 애통할 줄도 몰라요. 돈이 안 벌린다고 애통할 줄은 알아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죽일 듯이 달려들 줄은 알아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아주 슬퍼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몸 건강하고 돈 잘 벌리고 자식이 일류대학 들어가는 이 상태에서 내가 문둥병자요, 나병환자라는 것에 대한 자각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에 있다고 서울대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에 저주의 세계에 산다고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이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잘 사는 것 보세요. 독일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실지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선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민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말해 주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아서 십자가 생활화

를 하겠습니까? 선민인데도 아직도 저주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많고 엉뚱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 뜯긴 것을 애통해 합니까? 그러면 바보예요. 거룩을 향해 나가야 하고 거룩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룩함의 장소인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삶이 들어가 있지 못하고 우리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이 있게 된 것인데 어디가 있어야 될 곳입니까? 바로 구름위의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름위의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위의 하늘에 계신 주님께 가 있어야 하고 성령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땅에서 어딜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까? 10년 뒤에는 돈 벌어서 뭘 해야지. 거기 가서 있어요. 몇 년 뒤에는 뭘 해야지. 애인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내 보물이 은행에 얼마큼 쌓여 있는데. 거기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었다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나병을 통해 지금이 바로 저주의 상태요, 그 옛날의 문둥병이 걸린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죽을병에 걸린 게 애통할 문제가 아니라 죽기 전에 저주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애통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삽니다. '인간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려라.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자각이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가고 그 십자가의 생활화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거룩을 향한 중단 없는 추진력의 근원이 '나는 나병환자라'는 자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살기도 바쁜데. 이것을 아니까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돈도 더 많고 배운 것도 더 많은데 왜 내가 자식 앞에서 죽어요? 펄펄 살아서 가르쳐야지. 나병환자의 의식이 있으므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만지면 자식도 나병 걸립니다. 사업도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을 읽어서 열심히 해야지. 죽긴 왜 죽느냐고 하는데 내가 나병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도 나도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진력을 잃으면 거룩을 잃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하는가? 바로 내가 영적으로 나병환자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고

아담 타락이후에 저주의 상태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필코 날마다 거룩에 도달하는 선민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